SO "프로그램 사용료 조정" vs PP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 10년 갈등 재점화

LG헬로비전, CJ ENM 송출 중단
딜라이브, 엠넷·투니버스 등 종료

OTT 등장으로 콘텐츠 공급자 우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법적분쟁 발발



생성형 AI로 만든 LG헬로비전과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미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유료방송 가입자와 시청률 감소로 경영 부담이 커진 SO는 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가치를 반영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최근 CJ ENM의 4개 채널의 송출 종료 계획을 통보했다. 이달 26일부터 tvN스포츠, 중화TV 등 4개 콘텐츠를 방송에 송출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LG헬로비전은 수신료 매출 감소와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프로그램 사용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딜라이브도 엠넷, 투니버스 등 4개 채널의 공급계약 종료를 내걸고 사용료를 협상 중이다.

양측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10년 넘게 지속된 해묵은 문제다. 케이블TV가 시장 우위를 점하던 2010년에는 콘텐츠 공급자가 정부에 최소 수신료 배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유료방송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비용 부담이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로 이어지면서다. 당시 케이블 TV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주도권은 정반대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를 송출하는 플랫폼이 대거 등장하면서 콘텐츠 공급자가 협상 카드를 확보하게 됐다. 예를 들어 대표 사업자인 CJ ENM은 자사의 방송 채널을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OTT 서비스 '티빙'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 상황은 변했지만 이들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SO협의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채널별 시청률과 기여도, 사업자의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특정 대형 PP 채널의 경우 시청률이 2023년부터 2년 사이 20%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6.3% 줄었다.

반면 PP업계는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PP업계도 제작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방송 광고 매출은 2021년 1조6862억에서 지난해 1조1331억원으로 32.8% 급감했다.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이어져 온 '선공급 후계약' 관행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LG헬로비전과 CJ ENM은 지난 2023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자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사용료 산정 기준과 계약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는 막바지 조율 단계를 거쳐 오는 12월 중 유료방송의 미디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시급히 공론장을 마련해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PASS 앱으로 교통 과태료 확인

경찰청과 함께 내일부터 시행
고지내용·납부기한 신속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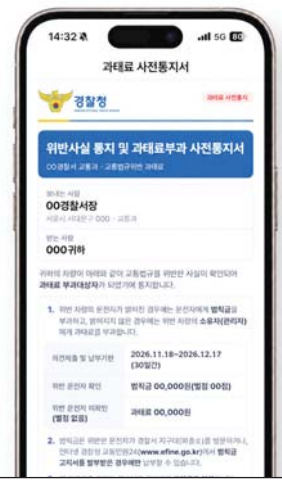
KT는 오는 18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패스(PASS) 앱을 통해 교통 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사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부과 내용과 납부기한을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종이우편은 다른 우편물과 섞이거나 분실될 수 있고, 수신자가 집을 오랜 기간 비울 경우 고지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 등 고지 내용과 납부기한 등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신자는 최초 1회 패스 지갑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전자주소 등록 약관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고지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고지 내용은 패스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자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해진 기간 내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 앱과 종이우편을 통해 재안내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기존 종이우편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면 대체하지 않고 병행 운영해 패스 앱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기존 방식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패스 전자고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발송·수신·열람 여부를 확인해 고지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와 우편 발송을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자원 절감 등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SKT-효성重, AIDC 전력 인프라 강화

GW급 신규 AIDC 사업 발굴 '맞손'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AIDC)에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효성중공업과 협력한다. 핵심 전력설비의 생산 계획을 공유하고, 차세대 전력변환 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효성중공업과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345kV 변전소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800V 직류배전 등 차세대 전력기술 실증을 시작으로 GW급 신규 AI 데이터센터 사업 발굴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양사 대표이사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가 대규모·고밀도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핵심 전력설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 역량이 필수다.



16일 서울 SKT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재헌 SK텔레콤 CEO(왼쪽)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개발·운영 역량과 효성중공업의 전력 인프라 제조·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결합하고 미래 AI 인프라 시장에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345kVV 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주요 전력설비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345kV 변전소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을 전력계통에서 받아 데이터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변환해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변압기처럼 주문부터 납품까지 오래 걸리는 장납기 설비는 확보가 늦어지면 설치·가동 일정까지 밀릴 수 있다. 양사는 핵심 장납기 설비의 생산·공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협의해 설비 조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800V 직류배전 등 차세대 전력변환 기술의 공동 검토 및 실증도 추진한다. 800V 직류배전은 서버와 통신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을 서버·통신장비 직류로 보내 변환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다. 향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센터 가동 이후의 전력 인프라 운영 역량도 강화한다. 초고압 변전설비 운영·유지보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SK텔레콤과 효성중공업은 협력 범위를 AI 데이터센터 사업개발·구축 분야로 넓히고, 각 사의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결합한 신규 사업 기회 및 협력형 사업모델을 공동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LG U+, 기업 네트워크·보안 통합 관리

플랫폼 '유플러스세이시' 선봬

LG유플러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기업의 네트워크와 보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 '유플러스세이시(U+SASE)'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플러스세이시는 기업의 모든 업무 공간 속 네트워크 연결과 보안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사와 지사,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재택·원격근무 환경 등 이 포함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기업의 업무 환경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원격근무와 생성형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 데이터가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사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 네트워크 회선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보안은 개별 보안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거 방식은 빠른 대응과 원인 파악이 어려워 관리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유플러스세이시'를 개발했다. 보안이 필요한 업무 트래픽을 네트워크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협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유해·악성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보안 웹 게이트웨이(SWG) ▲클라우드 기반 방화벽(FWaaS) ▲SaaS 사용 현황을 가시화하고 통제하는 CASB ▲사용자와 단말의 상태를 검증해 업무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 등의 기능이 활용된다.

특히, ZTNA의 핵심인 네트워크 환경과 단말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최적의 보안 경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은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해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생성형 AI에 대응한 보안 기능도 지원한다. 임직원이 입력한 프롬프트와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한 요청은 차단하고, 개인정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 모니터랩과의 협력해 보안 수준을 높였으며, LG유플러스의 보안 전담 직원들이 24시간 365일 네트워크와 보안을 통합 관제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안랩클라우드메이트, 韓 인터넷대상 특별상

'시큐어브리지' 개발·보급 공로 인정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인터넷 기술혁신' 부문에 선정됐다. 이 부문은 인터넷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화, 융·복합 기술 개발 등으로 인터넷 기술·서비스 혁신에 공헌한 단체에 주는 상이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 '시큐어브리지'를 개발·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생성형 AI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대신 보안 정책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터넷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하는 정부 시상이다. 인터넷 산업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단체·개인을 찾아 포상한다. 단체 부문은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으로 나뉘고, 개인 부문에는 공로상이 있다. /김보민 기자 kbm@